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Edition

Summary in Korean

연금 총관 : OECD 국가 공공정책 2007 년판

국어 개요

연금총관 제 2 판인 동보고서에서는 첫판에서 개발한 주요 퇴직소득제도 관련 지표를 전부 최신화한다. 연금제도의 모든 변수가치는 2004 년 상황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미시경제 접근법”을 활용하여 30 개의 OECD 국가 연금체제별로 국민 개인의 연금수급 전망을 살펴본다.

동보고서는 우선 국민의 퇴직소득지급을 구성하는 각종 연금체계를 연금제도의 변수 및 규칙 개요 등을 통해 나타내며 잇따라 OECD 연금방식을 토대로 계산한 8 개의 주요 연금소득 지표를 보인다. 또한 이 사안은 연금개혁과 사적연금에 관한 2 가지 특별 분석을 수반하는 만큼 OECD 연금방식을 활용하여 국내 토론에서의 연금정책 관련 핵심사안을 철저히 살피보게 한다. 끝으로 30 개국의 퇴직소득제도 배경에 관한 상세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

평균소득 근로자 경우, 의무적 연금 차원에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총대체율이 OECD 평균으로 58.7%이긴 하지만 노령층 지원에 세계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생활자들은 종종 사회안전기여금을 내지 않는 입장이고 또한 개인 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 적용과 보통 퇴직 전 소득수준에 미달된 연금수급으로 오래 세금을 덜 낸다. OECD 국에서 평균소득자의 순대체율은 평균 70%대에 달하는바 총대체율 평균보다 11%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자의 순대체율은 OECD 평균으로 83%다. 그렇지만 국가마다 차이를 보여 북부국은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을 버는 근로자에게 95%의 순대체율을 보장하고 영어권 국가는 이 순소득치의 76%이 지급된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체율뿐 아니라 연금계약 총액 규모 또한 문제가 된다. 연금계약 총액을 재는 연금자산 지표는 기대수명과 생활비에 맞춘 연금지불방식을 반영한다. 이 지표를 토대로 연금계약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다. 한편 남성 연금생활자는 평균 92 만불 정도를 수령하고 여성 퇴직자는 100 만불 이상을 수령할 것이다. 네덜란드, 그리스의 평균연금은 각각 2, 3 위에 속한다. 가장 절도 있는 연금제도 국가는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영국, 미국으로 연금자산이 OECD 평균의 2/3 안팎이다. 최하위권 국가는 멕시코인데 남성, 여성에게 약속된 연금수준이 각각 34,000 불, 32,000 불이다.

거의 모든 30 개 OECD 국이 1990 년부터 국내연금제도에 적어도 일부 변화를 개시했던 경우다. 그 결과, 16 개국은 평균 연금계약수준이 22% 감축되었으며 이들 국가 개혁사례는 동 보고서에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여성의 평균 연금계약은 25% 감축되었다. 16 개국 중 헝가리, 영국 2 개국만이 평균 연금계약이 증가한 경우였다.

이러한 변화는 각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등 일부국은 공적연금에서 저소득층 대상을 더욱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 슬로박 등 여타 국가들은 연금수급과 소득 간의 연계를 바짝 좁힌 결과 저소득층이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예로 독일,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박에서 중간소득의 절반수준으로 직업생애를 마친 근로자는 연금 순급여액이 개혁 실시 이전 경우 중간소득의 약 41%로 OECD 전체 평균에 약간 못 미친 수준이었지만 개혁과 함께 이 수준은 향후 감축되어 단지 32.5%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영국은 연금개혁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애썼다.

OECD 국이 개시한 열띤 개혁활동은 오늘의 근로자들이 미래 퇴직 준비를 위해 스스로 더 힘쓸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비록 근로자들이 직업생애 내내 저축한다고 해도 몇 국가는 OECD 대체율 평균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경우다. 만일 청년 근로자들이 예산상의 여타 요구로 근로생애 초기의 10년 혹은 15년의 기여경력을 빼먹는다면 이들이 충분한 연금수준에 이르기란 더욱 난해해질 것이다. 동 보고서는 이른 시기의 저축 실시와 정규적 연금기여가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